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경:로마서  
1장17-25절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17-25)

의는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완성된 의를 말한다.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신 분이시다. 사람의 의는 대부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신념, 자기 입장, 자기 지식의 범위 등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

##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왜냐면 복음은 온 인류의 가장 큰 재앙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답은 내게 있을지 몰라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해답은 아이에게 있는게 아니라, 엄마에게 있다.

온 인류의 재앙이란 죽음, 저주, 심판, 정죄, 형벌, 영벌이다.

이 재앙이 내게도 닥쳐오게 된다는 신호가 질병, 고난, 가난, 실패, 좌절, 우울 등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고치시고 부활하셨다.

죄의 문제를 고치시고 속죄하셨다.

심판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호 하셨다.

형벌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재앙의 신호가 되는 질병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다.

가난의 문제를 고치시고 부요케 하셨다.

실패와 좌절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명을 주셨다.

-오직 하나님이 낮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의인

그런데 이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가입하려면 오직 믿는 길 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험할 수도 없고, 내가 한번 죽어서 지옥에 가볼수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다.

내가 태양이 형성되던 날로 되돌아가서 태양의 탄생을 지켜볼 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없다.

사실 과학이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뭔가를 실험하려면 얼마나 많은 제약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모른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설명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적 실험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아니라, 믿고 하자는 것이다.

왜냐면 믿음이 믿음을 낳기 때문이다.

콩심은데 콩나고, 미움 심은데 미움난다. 그래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면 그것이 곧 나의 신용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수록 하나님도 나를 더 신뢰 하시고 나의 신용점수를 높게 책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주신다.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신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믿음으로 가능해진다.

누군가 속이고 욕심을 부리면 일은 곧 무산이 되고 손해를 본다.

그러나 의인은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은 한번은 믿어준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함께 유익을 얻는다.

믿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믿음이 산업을 살리며, 믿음이 믿음을 살린다.

믿음이 소망을 낳고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

창조세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

창조세계는 신비하고 경이롭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설계하신 대로, 예측하신 대로 움직인다.

창조세계에서는 아무도 이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것이 창조세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세계는 멸망하는게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으며 영벌에 처해질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창조세계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3차원 세계는 4차원의 거울이다.

이미 3차원에는 생명이 있어서 영생의 거울이 된다.

3차원에는 사랑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 된다.

3차원에는 꿈도 있기 때문에 이미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4차원의 세계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의다.

우리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